

# 陳士鐸의 陰陽五行說에 대한 闡發

李柄直·尹暢烈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 對於陳士鐸陰陽五行說的闡發

李柄直·尹暢烈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通過對陳士鐸的著作中，其對前人在陰陽五行論中未開發的內容所進行的發揮方面的研究得出以下結論：

陳士鐸主張陰陽顛倒說，認為順生逆死之常的變化會引起順之有死和逆之有生的現象，且陰陽互根的關係是其根源所在。陳氏所主張的五行中相生關係既可為相克關係，相克關係又可為相生關係的理論，拓寬了五行理論的研究範疇。陳氏主張生中之克的理論，認為在相生關係中，若本臟無水，則無法生其子臟，而反害子臟。陳氏主張克中之生的理論，認為肝克土與土生肝的關係都成立，若木克土則土得以疏通，土得生氣而肝可生土。余臟亦有與此相同的關係。陳氏主張生不全生的理論，認為腎水不僅生肝，還生其餘臟腑，雖為生命活動之根本，但活動過度會使腎水枯竭，從而危及生命。陳氏主張克不全克的理論，認為腎火不僅克心火，還克其餘臟腑，因此腎火過亢雖然會危及臟腑，但損及有限，不會使之完全受損。陳氏主張生畏克而不敢生的理論，認為相克之力過強則阻遏相生，當治療時應瀉其相克之力，或補其受克之臟。陳氏主張畏生而不敢克的理論，認為相生之力過強則阻遏相克作用正常發揮，當治療時應補其母而旺其子，瀉其克子之臟，勿需顧護子臟。陳士鐸能夠靈活運用臟腑的生中有克與克中有生的理論，在辨證中運用自如。

關鍵詞：陳士鐸, 陰陽五行論, 陰陽互根, 生中有克, 克中有生。

### I. 緒論

明清時期에 있어서 江蘇省 및 浙江省 一帶는 中醫學術이 비교적 繁昌한 地域으로서 影響力있는 醫家들이 많이 나타났다. 예를 들면 薛己, 趙

獻可, 張介賓, 李中梓, 吳有性, 繆希雍, 馬蒔, 張璐, 陳士鐸, 呂留良, 張志聰, 潘又彭, 柯琴, 葉桂, 薛雪 등이 있다. 이상과 같은 醫家들은 陳士鐸의 學術思想의 形成에 모두 비교적 큰 影響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陳士鐸은 一生동안 遊歷을 좋아하여 全國의 많은 곳에 간 적이 있었고, 가는 곳마다 醫療行爲를 行하는 동시에 名醫를 찾아 訪問하였

는데 한 地域에서 오랫동안 머물곤 하였다. 現存의 陳士鐸의 著作을 통하여 그의 學術思想의 內的精神을 본다면, 그가 同時代 및 前時代 醫家들의 學術思想을 繼承한 基礎위에 長期間의 臨床經驗을 통하여 形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학술사상의 특징은 한두 가지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陰陽五行의 相生相克을 자유자재로 운용하여 辨証에 活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전까지의 陰陽五行은 相生과 相克에 있어 기계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하였고 혹 그 틀을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臟腑에 적용하여 자유자재로 운용한 사람은 거의 드물었다. 진사탁은 오장, 육부사이에 五行의 相生과 相克을 자유롭게 운용하여 변증논치에 活用하였는데 이는 과거에는 별로 없었던 그 만의 독특한 학술적 특징이 된다. 이에 저자는 그의 저서에 나타난 陰陽五行의 이론과 임상적 활용에 대해 고찰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 II. 本 論

陳士鐸의 陰陽五行學說에 대한 理解는 中醫學理論의 內容을 豊富히 하였고, 동시에 理論을 發展시키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은 認識은 그가 生命을 認識하고 疾病을 認識하며 辨證論治를 進行하는 指導思想으로 뿌리내리게 되었다. 그의 陰陽五行學說에 대한 理解는 그의 모든 著書에서 普遍的으로 應用되었고 그가 辨證論治하는 核心精髓로 되었다.

### 1) 陰陽顛倒說

그는 陰陽學說을 理解함에 있어서 “陰陽顛倒”說을 提起하였는데, 顛倒란 뒤집힌다는 뜻으로 陰陽의 원리가 반대로 적용된다는 뜻이다. 그는 『外經微言·陰陽顛倒篇』에서 “乾坤之道는 不外男女하고 男女之道는 不外陰陽하고 陰陽之道는 不外順

逆하니 順則生하고 逆則死也라 陰陽之原은 卽顛倒之術也니 世人皆順生이나 不知順之有死하고 皆逆死나 不知逆之有生이라 故未老先衰矣<sup>1)</sup> (건곤의 이치는 남녀를 벗어나지 않고 남녀의 도리는 음양을 벗어나지 않고 음양의 도리는 순역을 벗어나지 않으니 음양의 이치에 순하면 살고 음양의 이치에 거슬리면 죽는다. 음양의 근원은 顛倒之術이니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음양의 이치에 순응하여 사나 순응함에 죽음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모두 음양의 이치에 거역하면 죽으나 거역함에 삶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늙기도 전에 먼저 쇠약해 진다.)” 라고 說明하였다. 그는 陰陽이 本來 一體인 故로 逆과 順은 서로 轉化할 수 있다고 認識하였다. 즉 常道로 말한다면 順陰陽則生하고 逆陰陽則死하지만, 그 本原으로부터 본다면 陰陽이 본래 一體이기에 逆順은 可히 轉化될 수가 있어 順中有死하고 逆中有生하는 것이 되므로, 이것이 바로 陰陽顛倒 라고 하였다. 『素問·四氣調神大論』을 보면 “從陰陽則生하고 逆之則死하니 從之則治하고 逆之則亂이라 反順爲逆이니 是爲內格<sup>2)</sup>”이라고 하였다. 『黃帝內經』중에 나타난 逆順에 관한 論述은 天地, 陰陽, 四時, 生機, 疾病, 治療 등을 포괄하고 있고, 그 중에는 陰陽轉化의 思想이 內包되어 있는데, 陳氏는 陰陽發生의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陰陽의 互根關係를 說明하였다. 그는 또 “逆順探原篇”에서 五行生剋의 理論을 應用하여 이와 같은 陰陽의 轉化關係를 한층 더 깊이 說明해 주었다. 그는 “顛倒之術은 卽探陰陽之原也”라 했고 또 “陰陽之原者는 卽生剋之道也오 顛倒之術者는 卽順逆之理也니 知顛倒之術이면 卽可知陰陽之原矣<sup>3)</sup>”라고 하였다. 그는 다시 五行을 應用하여 事物의 生剋順逆의 關係를 說明하였는데, “五行은 順生不生하고 逆死不死하니 生而不

1) 柳長華, 陳士鐸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 5.

2) 南京中醫學院醫經教研組編著, 黃帝內經素問譯釋, 上海, 上海科技出版社, 1981. p. 17.

3) 柳長華, 상게서, p. 6.

生者는 金生水而剋水하고 水生木而剋木하고 木生火而剋火하고 火生土而剋土하고 土生金而剋金이니 此害生於恩也오 死而不死者는 金剋木而生木하고 木剋土而生土하고 土剋水而生水하고 水剋火而生火하고 火剋金而生金이니 此仁生於義也라 夫五行之順은 相生而相剋하고 五行之逆은 不剋而不生이라<sup>4)</sup>(오행은 順하면 生하나 不生하기도 하고 逆하면 死하나 不死하기도 하나니 살리면서도 살리지 않는다는 것은 金生水하면서도 金剋水 하고, 水生木 하면서도 水剋木하고, 木生火 하면서도 木剋火하고, 火生土 하면서도 火剋土 하고, 土生金 하면서도 土剋金 하니 이것은 해로움 즉 相剋을 당하는 것이 은혜, 즉 相生에서 생겨난 것이다. 죽이면서도 죽이지 않는다는 것은 金剋木 하면서도 金生水 하고, 木剋土 하면서도 木生水 하고, 土剋水 하면서도 土生水 하고, 火剋金 하고 火生金 하니 이것은 仁 즉 相生이, 義 즉 相剋에서 생겨난 것이다. 무릇 五行之順은 相生 하면서도 相剋 하고 五行之逆은 相剋 하면서도 相生 한다. 원문의 不剋而不生은 相剋而相生的 잘못인 듯 하다.)" 고 하였다.

五行을 天地萬物과 人間에게 適用시키면 그 變化는 無窮無盡한데, 그 變化의 核心은 즉 生剋이라는 두 글자에 달려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五行生剋의 관계를 통하여 抽象의인 陰陽顛倒의 概念을 說明한 것을 把握하는 것이 바로 陳氏가提起한 “順生不生 逆死不死”를 理解하는 포인트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는 『外經微言·五行生剋篇』에서 한층 더 나아가서 “心肝脾肺腎에 配火木土金水는 非人身之五行乎아 雷公曰 請言其變하노이다. 岐伯曰 變則又何能盡哉리오 試言其生剋하리라 生剋之變者는 生中剋也와 剋中生也와 生不全生也와 剋不全剋也와 生畏剋而不敢生也와 剋畏生而不敢剋也라” 하였다. 이를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4) 上同.

## 2) 상생가운데 상극이 있음(生中之克)

陳士鐸은 『外經微言·五行生剋篇』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雷公曰 何以見生中之剋乎아 岐伯曰 腎生肝에 腎中無水면 水潤而火騰矣니 肝木受焚이면 腎何生乎아 肝生心에 肝中無水면 水燥而木焦矣니 心火無烟이면 肝何生乎아 心은 君火也오 包絡은 相火也라 二火無水면 時自炎也니 土不得火之生하고 反得火之害矣라 脾生肺金也에 土中無水면 乾土何以生物고 燦石流金하면 不生金하고 反克金矣라 肺生腎水也에 金中無水면 死金何以出泉고 崩爐飛汞하면 不生水하고 反克水矣라 蓋五行多水則不生하고 五行無水라도 亦不生也니라<sup>5)</sup> (뇌공이 이르기를 相生 가운데 相剋을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기백이 이르기를 腎이 肝을 생함에 腎속에 水가 없으면 물이 말라 불이 뜨게 되니 肝木이 불타게 되면 腎이 어찌 생한다 하겠는가. 肝이 心을 생함에 肝속에 水가 없으면 물이 건조하여 나무가 타게되니 心火가 타게 된다면 肝이 어찌 생한다 하겠는가. 心은 君火이고 包絡은 相火이다. 二火에 물이 없으면 때때로 저절로 불타니 土가 火에서 생함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火의 해침을 받게 된다. 脾가 肺金을 생할대 土속에 水가 없으면 마른 土가 어찌 물건을 생할 수 있는가. 돌을 녹이고 쇠불이가 녹아 흐르면 金을 생하지 못하고 도리어 土剋金 하게 된다. 肺가 腎水를 생함에 金속에 水가 없다면 죽은 金이 어찌 생물을 내보내겠는가. 화로가 무너지고 수은이 날아가면 金生水 하지 못하고 도리어 金剋水 하게 된다. 대개 五行에서 물이 많으면 생하지 못하고 五行에서 물이 없더라도 또한 생하지 못하게 된다. 心火無烟의 無烟은 炎烟 또는 焚烟의 잘못 같다.)”

이와 같은 내용을 『石室秘錄·論五行』에서는 “何以見生中有剋고 腎生肝也에 腎之中有火存焉하야 腎水乾枯면 腎不能生肝木矣니 火無水制면 則

5) 柳長華, 상계서, pp. 32~33.

腎火沸騰하여 肝木必致受焚燒之禍하니 非生中有剋乎아 治法은 當急補其腎中之水니 水足而火息하면 腎不剋木 而反生木矣리라 肝生心也에 肝之中有水(火의 잘못이다)存焉하야 肝火燥熱하면 肝不能生心火矣니 木無水養 則肝木焦枯하야 心火必有寒冷之虞니 非生中有剋乎아? 治法은 當急補其肝이니 水足而木旺하면 肝不剋火 而反生火矣리라. 心中之火는 君火也오 心包之火는 相火也니 二火之中에 各有水焉이라. 二火無水 則心燔灼而包絡自焚矣니 又何能火生脾胃之土乎아. 火無所養 則二火熾盛하야 必有燎原之害니 此生中有剋이 不信然乎아 治法은 當補其心中之水하야 以生君火하고 更當補其腎中之水하야 以滋相火니 水足而二火皆安이던 不去剋脾胃之土, 而脾胃之土自生矣리라. 脾土는 剋水者也라 然土必得水以潤之而後야 可以生金이라. 倘土中無水 則過于亢熱하야 必有赤地千里와 燧石流金之災니 不生金而反剋金矣리라. 治法은 當補其脾陰之水니 使水足以潤土 而金之氣有所資면 庶幾金有生而無剋也라. 肺金은 生水者也라 然金亦必得水以濡之而後에 可以生水니 倘金中無水면 則過于剛勁하야 必有煅煉太甚하야 崩爐飛汞之憂니 不生水而反剋水矣리라. 治法은 當補其肺中之水니 使水足以濟金 而水之源有所出이던 庶幾水有生而無剋也라. 以上五者는 言生中有剋하야 實有至理니 非漫然立論이라 倘腎中無水면 用六味地黃湯大劑與之오 肝中無水면 用四物湯이오 心中無水면 用天王補心丸이오 心包無水면 用歸脾湯이오 脾胃無水면 用六君 四君이오 肺經無水면 用生脈散이니 舉一而類推之可也라”<sup>6)</sup>고 하였다.

이상의 내용은 五臟의 相生 가운데서 母臟에 水가 없으면 子臟이 도리어 해를 받는다고 설명하는 내용인데 장개빈도 類經圖翼에서 生中有剋(상생 가운데 相剋이 있다)을 설명한바가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所謂生中有剋者는 如木以生火나 火勝則木及灰燼하고 火以生土나 土勝則火爲撲滅하고 土以生金

이나 金勝則土無發生하고 金以生水나 水勝則金爲沈溺하고 水以生木이나 木勝則木爲壅滯니 此其所以相生者 實亦有所相殘也라<sup>7)</sup> (이른바 생하는 중에 극함이 있다는 것은 예로 들면 나무로써 불을 생하나 불이 승하면(지나치게 많으면)나무는 곧 타버리게 된다. 불로써 흙을 생하나 흙이 승하면 불은 꺼지고 흙으로써 쇠를 생하나 쇠가 승하면 흙은 생명을 발생시키지 못한다. 쇠로써 물을 생하나 수가 승하면 쇠가 침닉하게 되고 물로써 나무를 생하나 나무가 승하면 물은 막혀 흐르지 못하게 된다. 이것은 상생하는 것이 실제로는 서로 해치는 바가 있다는 이유이다.”

그런데 장개빈이 生中有剋은 母가 子를 생하여 子가 盛하게 되면 母가 피해를 당한다는 것으로 陳士鐸의 母臟에 水가 없으면 子臟을 생하지 못하고 剋한다는 生中之剋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 3) 相剋 가운데 相生이 있음(剋中之生)

陳士鐸은『外經微言·五行生剋篇』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雷公曰 何以見剋中之生乎아 岐伯曰 肝剋土에 土得木以疏通 則土有生氣矣오 脾剋水에 水得土而蓄積 則土(水)有生基矣오 腎剋火에 火得水而上濟 則火有神光矣오 心剋金이나 然肺金必得心火以煅煉也오 肺剋木에 然肝木必得肺金以斬削也니 非皆剋以生之乎아<sup>8)</sup> (뇌공이 이르기를 相剋 가운데 相生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기백이 이르기를 肝 이 土를 剋함에 土가 木의 剋함을 얻어서 소동이 되면 土가 生氣가 있게되고, 脾가 水를 剋함에 水가 土의 剋함을 얻어서 축적이 되면 水가 생하는 터전이 있게되고, 腎이 火를 剋함에 火가 水의 剋함을 얻어서 上濟하면 火가 신령한 빛을 내고, 心이 肺金을 剋하나 肺金은 반드시 心火를 얻어야만 단련이 되고, 肺가 肝木을 剋하나 肝木

7)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成輔社, 1982, p. 11.

8) 柳長華, 상계서, p. 33.

6) 柳長華, 상계서, p. 389.

은 반드시 肺金을 얻어야만 배어지고 깎아지게 된다. 土有生基矣에서 土는 水의 잘못된 듯 하다.)”

이상의 내용은 五藏의 相克이 유익하게 작용함을 설명한 것이다. 五藏의 生理를 살펴보다라도 木克土에 의해 肝이 脾를 克하나 肝의 疏泄作用에 膽汁이 배설되고 脾의 運化 기능이 촉진된다. 土克水에 의해 脾는 腎을 克하나 脾의 運化作用은 腎液의 水濕과 痰飲의 停滯를 방지하여 水液을 轉輸하고 排出시킨다. 水克火에 의해 腎은 心을 克하나 心은 腎水의 克制를 통해 既濟를 이루고 火克金에 의해 心을 肺를 克하나 肺는 心臟의 박동과 心血의 도움으로 氣를 전신에 流布시키며 金克木에 의해 肺는 肝을 克하나 肝血은 肺氣의 도움으로 전신에 공급되고 升發 疏泄作用이 肺의 肅降作用의 도움을 받아 中道를 얻게 된다.

장개빈은 유경도익에서 역시 克中之用을 言及하고 있는데 그는 “所謂克中之用者는 如火之炎熾는 得水克而成既濟之功하고 金之頑鈍은 得火克而成煨煉之器하고 木之曲直은 得金克而成芟削之材하고 土之曠墾은 得木克而見發生之化하고 水之泛濫은 得土克而成堤障之用하니 此其所以相克者實又所以相成也라 而五常之德도 亦然하니 如木德爲仁이요 金德爲義오 火德爲禮오 水德爲智오 土德爲信이니 仁或失於柔故로 以義斷之하고 義或失於剛故로 以禮節之하고 禮或失於拘故로 以智通之하고 智或失於詐故로 以信正之하니 是皆生克反用之道也라<sup>9)</sup>(이른바 극하는 가운데 쓰임이 있다는 것은 예로 들면 화의 뜨겁게 불타오르는 것은 물의 극함을 얻으면 기체의 공을 이룰 수 있다. 쇠의 단단하고 무덤이 불의 극함을 얻어 단련된 그릇을 이룬다. 나무의 곡직은 쇠의 극함을 얻으면 배어지고 깎여져 목재를 이룬다. 토의 황량함이 나무의 극함을 얻으면 발생의 변화를 이룬다. 물의 범람이 흙의 극함을 얻으면 제방의 쓰임을 이룬다. 이것은 상극하는 것이 실제로 또 서로 이루

는 것이 있음이다. 그리고 오상의 덕 또한 그렇다. 예를 들면 목의 덕은 인이 되고, 금의 덕은 의가 되고, 화의 덕은 예가 되며, 수의 덕은 지가 되고, 토의 덕은 신이 된다. 인은 혹 우유부단함에 빠지는 고로 의로써 그것을 결단하고, 의는 혹 강함에 빠지는 고로 예로 절도있게 하고, 예는 혹 구차함에 빠지는 고로 지혜로써 그것을 소통시키고 지혜는 혹 거짓에 잘못되는 고로 이것은 믿음으로써 바로잡으니 이것이 모두 상생과 상극이 반대로 작용하는 이치이다)”

이를 통해 볼때 相克이라는 것은 克을 위한 克이 아니라 生을 보호하고 견고하게 하는 必要克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장개빈은 相克이 相生이 되는 일반적인 사실을 언급한데 반해 진사탁은 五藏의 生理를 中心으로 언급한 것이 특징을 이룬다.

진사탁은『石室秘錄·一論五行』에서 克中有生에 대해서 다시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肝克土也에 而肝木은 非土면 以何以生고 然而 肝木未嘗不能生土하니 土得木以流通 則土有生氣矣라. 脾克水也에 而脾土는 非水면 又何以生고 然而 脾土未嘗不生水니 水得土而蓄積 則水有根基矣라. 腎克火也에 而腎水는 非火면 不能生이니 无火則腎无溫暖之氣矣라. 然而心火는 必得腎水以生之也오 水生火면 而火無自焚之禍라. 心克金也에 而心火는 非金이면 不能生이니 无金則心无清肅之氣矣라. 然而肺金必得心火以生之也니 火生金하면 而金无寒冷之憂라. 肺克木也에 而肺金은 非木이면 不能生이니 无木則金无舒發之氣矣라. 然而肝木은 必得肺金以生之也니 金生木이면 而木无痿廢之患이라.<sup>10)</sup>

여기서 진사탁은 肝克土나 “肝木은 非土면 以何以生고”하여 土生肝함을 설명하였고 다시 木克土하여 土가 流通이 되면 土가 生氣가 있게 됨으로 肝生土가 됨을 설명하였다.

脾克水나 “脾土는 非水면 又何以生고” 하여 水

9) 張介賓, 상계서, p. 4.

10) 柳長華, 상계서, pp. 389~390.

生脾함을 설명하였고 다시 土克水하여 물이 蓄積 되면 水가 根基가 있게 됨으로 脾生水가 됨을 설명하였다.

腎克火나 “腎水是 非火면 不能生이니 無火則腎無溫暖之氣矣라” 하여 火生腎함을 설명하였고 心火가 腎水の 克을 얻어 自焚之禍가 없게 된다고 하여 腎克火가 곧 腎生火임을 설명하였다.

心克金이나 “心火는 非金이면 不能生이니 無金則心無清肅之氣矣라”하여 金生心함을 설명하였고 肺金이 心火의 克을 얻어 “金無寒冷之憂”라 하여 心克金이 곧 心生金임을 설명하고 있다.

肺克木 이나 “肺金은 非木이면 不能生이니 無木則金無舒發之氣矣라” 하여 木生金함을 설명하였고 肝木이 肺金의 克을 얻어 木無痿廢之患하므로 肺克木이 곧 肺生木임을 설명하였다. 그리하여 진사탁은 “以上五者是 亦存至理 하니 知其顛倒之奇면 則治病에 自有神異之效”<sup>11)</sup> 라고 하였다.

#### 4) 生함이 전적으로 생이 아님(生不全生)

이에 대해 陳士鐸은 『外經微言·五行生剋篇』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雷公曰 請言生不全生하노이다 岐伯曰 生不全生者는 專言腎水也니 各臟腑無不取資於腎하니니 心得腎水而神明煥發也 오 脾得腎水而精微化導也 오 肺得腎水而清肅下行也 오 肝得腎水而謀慮決斷也 오 七腑亦無不得腎水而布化也라 然而取資多者는 分給必少矣니 親於此者는 疏於彼하고 厚於上者는 薄於下니 此生之所以難全也라<sup>12)</sup>(뇌공이 이르기를 청컨대 生함이 전적으로 생이 아님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백이 이르기를 生함이 온전한 생이 아닌 것은 오로지 腎水を 말하는 것이니 각 장부가 腎에서 精微를 取하지 아니함이 없으니 心이 腎水를 얻어 神明이 발현하게 되고, 脾가 腎水를 얻어 精微之氣

를 변화 인도하게 되고, 肺가 腎水를 얻어 清肅의 기능이 下行하게 되고, 肝이 腎水를 얻어 謀慮를 결단하게 되고, 七腑가 또한 腎水를 얻어 宣布變化하지 않음이 없게 된다. 그러나 精微를 取함이 많으면 나누어 공급하는 것이 반드시 적어지게 되니 여기(腎)에 머물러만 있으면 彼(나머지 장부)에 부족하게 되고, 위(나머지 장부)에서 두터이 하면 아래(腎)에서 얇게 되니 이것이 生함이 온전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여기서 生不全生은 전적으로 腎水만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腎水가 生命活動의 뿌리가 됨을 강조하면서 臟腑의 活動이 이를 精微로 삼고 있지만 지나친 活動은 腎水를 고갈시켜 生命에 위해를 가져옴을 설명하고 있다. 『石室秘錄·一論五行』에서는 이에 대해서 “何以見生不全生乎 아 腎生肝也에 而不能全生肝木하니 蓋腎水無一臟不取資也라 心得腎水하면 而神明始煥發也 오 脾得腎水면 而精微始化導也 오 肺得腎水면 而清肅下行也 오 肝得腎水면 而謀慮始決斷也 오 六腑亦無不得腎水而後에 可以分布之라. 此腎經之不全生而無乎不生也라”<sup>13)</sup>라고 하여 生不全生의 뜻은 腎이 肝만을 전적으로 生하지 않고 나머지 五臟六腑를 모두 生한다고 하였다.

#### 5) 克함이 전적으로 克이 아님(克不全克)

이에 대해 진사탁은 『外經微言·五行生剋篇』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雷公曰 請言剋不全剋하노이다 岐伯曰 剋不全剋者는 專言腎火也니 腎火는 易動難靜하며 易逆難順하며 易上難下라 故一動則無不動矣 오 一逆則無不逆矣 오 一上則無不上矣니 騰於心이면 燥煩矣 오 入於脾면 乾澀矣 오 昇於肺면 喘嗽矣 오 流於肝이면 焚燒矣 오 衝擊於七腑면 燥渴矣라 然腎火는

11) 柳長華. 상계서. p. 390.

12) 柳長華. 상계서. p. 33.

13) 柳長華. 상계서. p. 390.

乃雷火也며 亦龍火也니 龍雷之火는 其性雖猛이나 然聚則力專하고 分則勢散하니 無乎不剋이나 反無乎全剋矣라.<sup>14)</sup>(뇌공이 이르기를 청컨대 克함이 전적으로 克이 아님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이 이르기를 克함이 전적으로 克이 아니라는 것은 전적으로 腎火를 말하는 것이니 腎火는 쉽게 動해 高요해지기 어려우며 쉽게 逆해 順해지기 어려우며 쉽게 上昇해서 내려오기 어렵다. 그러므로 한번 動하면 動하지 아니함이 없고, 한번 逆하면 逆하지 아니함이 없고, 한번 上하면 上하지 아니함이 없으니 心으로 올라가면 煩燥하게 되고 脾로 들어가면 마르게 되고 肺로 올라가면 기침이 나고 肝으로 흘러가면 태우게 되고 七腑에 충격을 주면 건조하고 갈증이 난다. 그러나 腎火는 雷火며 龍火니 龍雷之火는 그 성질이 비록 맹렬하나 모이면 힘이 전일하고 흩어지면 세력이 흩어져서 克하지 아니함이 없지만 도리어 완전하게 克함도 없다.)”

이상의 克不全克은 전적으로 腎火만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데 腎火의 過亢함이 장부에 위해를 끼치지만 그것이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石室秘錄·一論五行』에서는 이에 대해서 “何以見克不全克乎아 腎克火也에 而不至全克心火니 蓋腎火無一臟不焚燒也라 心得腎火면 而燥煩生焉이오 脾得腎火면 而津液乾焉이오 肺得腎火면 而喘嗽病焉이오 肝得腎火면 而龍雷出焉이오 六腑亦無不得腎火而燥渴枯竭之症見矣라. 此腎經之不全克而無乎不克也라. (이것은 腎經이 완전히 克하는 것은 아니지만 腎이 克하지 않는 것이 없다.)”<sup>15)</sup>라 하여 克不全克의 뜻은 腎火는 전적으로 心火만 克하지 않고 나머지 五臟六腑를 모두 克한다고 하였다.

진사탁은 生不全生과 克不全克에서 腎水와 腎火를 전적으로 언급하여 腎中의 水火를 특히 重視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6) 生함이 克을 두려워하여 감히 生하지 못함(生畏克而不敢生)

역시 『外經微言·五行生剋篇』에서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雷公曰 生畏克而不敢生者는 若何오 岐伯曰 肝木生心火也에 而肺金太旺하면 肝畏肺克하야 不敢生心아니 則心氣轉弱하야 金克肝木矣라. 心火生胃土也에 而腎水(水)太旺하면 不敢生胃니 則胃氣更虛하야 水侵胃土矣라. 心包之火生脾土也에 而腎水過泛하면 不敢生脾니 則脾氣加困하야 水欺脾土矣라. 脾胃之土生肺金也에 而肝木過剛하면 脾胃畏肝하야 不敢生肺니 則肺氣愈損하야 木侮脾胃矣라. 肺金生腎水也에 而心火過炎하면 肺畏心克하야 不敢生腎이니 則腎氣益枯하야 火刑肺金矣라. 腎水生肝木也에 而脾胃過燥하면 腎畏脾胃之土하야 不敢生肝니 則肝氣更凋하야 土制腎水矣라. 雷公曰 何法以制之乎아 岐伯曰 制克以遂其生 則生不畏克이오 助生而忘其克 則克即爲生이라.<sup>16)</sup>(뇌공이 이르기를 生함이 克을 두려워하여 감히 生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岐伯이 이르기를 肝木이 心火를 生함에 肺金이 太旺하면 肝이 肺가 克함을 두려워하여 감히 心을 生하지 못하니 心氣는 더욱 弱해져서 金이 肝木을 克하게 된다. 心火가 胃土를 生함에 腎水가 太旺하면 감히 胃를 生하지 못하니 胃氣는 더욱 虛해져서 水가 胃土를 침범하게 된다. 心包火가 脾土를 生할 때 腎水가 지나치게 범람하면 감히 脾를 生하지 못하니 脾氣가 더욱 곤궁해져서 水가 脾土를 기만하게 된다. 脾胃土가 肺金을 生할 때 肝木이 지나치게 剛하면 脾胃가 肝을 두려워하여 감히 肺를 生하지 못하니 肺氣가 더욱 허손되어 木이 脾胃를 侵削여킨다. 肺金이 腎水를 生할 때 心火가 지나치게 불타면 肺가 心이 克함을 두려워하여 감히 腎을 生하지 못하니 腎氣가 더욱 말라서 火가 肺金을 억압한다. 腎水가 肝木을 生할 때 脾胃가 지나치게 燥

14) 柳長華, 상계서, p. 33.

15) 柳長華, 상계서, p. 390.

16) 柳長華, 상계서, p. 33.

하면 腎이 脾胃土를 두려워하여 감히 肝을 生하지 못하니 肝氣가 더욱 말라서 土가 腎水를 제압한다. 뇌공이 이르기를 무슨 방법으로 제압할것입니까? 岐伯이 이르기를 克함을 제압하여 그 生을 이루게 하면 生함이 克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生함을 도와서 그 克함을 잊게하면 克함이 곧 生이 된다. 腎火太旺의 火는 水의 잘못인 것 같다”

위의 내용은 相克과 相生의 상관성을 설명한 내용으로 相克이 지나치면 相生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相克이 지나치면 我가 克을 받아 子를 生하지 못하게 되고 子가 生하지 못해 약해지면 相克하는 본체를 克하지 못해서 더욱 我가 克을 받아 弱해지는 것이다.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制克以遂其生(石室秘錄에서는 見其生而制其克이면 則生可全生이라고 했다.)과 助生而忘其克(石室秘錄에서는 忘其克而助其生이면 則克且更克이라고 했다.)의 방법을 제시했는데 制克은 相克하는 本身을 瀉하는 것이고 助生은 我를 補하여 我之子가 相克의 主體를 克하게 하여 我를 克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 7). 克이 生을 두려워하여 감히 克하지 못함(克畏生而不敢克)

이 역시『外經微言·五行生剋篇』에 실려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雷公曰 善하노이다. 克畏生而不敢克者는 又若何오? 岐伯曰 肝木之盛은 由于腎水之旺也니 木旺而肺氣自衰니 柔金이 安能克剛木乎아 脾胃土盛은 由于心火之旺也니 土旺而肝氣自弱이니 僵木이 能克焦土乎아 腎水之盛은 由肺金之旺也니 水旺而脾土自微니 淺土가 能克湍水乎아 心火之盛은 由于肝木之旺也니 火旺而腎氣必虛니 弱水가 能克烈火乎아 肺金之盛은 由于脾土之旺也니 金盛而心氣自怯이니 寒火가 能克頑金乎아 雷公曰 何法以制之오 岐伯曰 救其生이면 不必制其克이라도 則弱多爲強이오 因其克하야 反更培其生이면 則衰轉爲盛

이라.17)(뇌공이 이르기를 훌륭합니다. 克함이 生을 두려워하여 감히 克하지 못한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岐伯이 이르기를 肝木이 盛함은 腎水가 旺盛하기 때문이니 木이 旺盛함에 肺氣가 저절로 衰弱해지니 유약한 金이 어찌 剛木을 克할 수 있겠는가. 脾胃土가 盛함은 心火가 왕성하기 때문이니 土가 왕성함에 肝氣가 저절로 쇠약해지니 뻣뻣해진 木이 焦土를 克할 수 있겠는가. 腎水가 盛함은 肺金이 왕성하기 때문이니 水가 왕성함에 脾土가 저절로 미약해지니 얇은 土가 湍水를 克할 수 있겠는가. 心火가 盛함은 肝木이 왕성하기 때문이니 火가 왕성함에 腎氣가 반드시 虛弱해지니 弱한 水가 烈火를 克할 수 있겠는가. 肺金이 盛함은 脾土가 왕성하기 때문이니 金이 왕성함에 心氣가 저절로 겁약해지니 찬불이 頑金을 克할 수 있겠는가. 뇌공이 이르기를 무슨 방법으로 다스립니까? 岐伯이 이르기를 그 生을 구원하면 (母를 補하면) 그 克함을 억제하기를 기필하지 않더라도 弱한 것이 強해지고 그 克함을 인하여 반대로 그 生하는 것을 더욱 복돋아 주면 衰한 것이 바뀌어 盛하게 된다” 이와 똑같은 내용이지만 『石室秘錄·一論五行』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何以見克畏生而不敢克乎아? 金克木也에 肺金之克肝은 又何畏于腎之生肝乎아? 不知腎旺則肝亦旺하고 肝旺則木盛하고 木盛則肺金必衰니 雖性欲克木이나 見茂林而自返矣라 故木衰者는 當補腎以生肝이오 不必制肺以扶肝이라. 木克土也에 肝之克脾는 又何畏于心之生脾乎아? 不知心旺則脾亦旺하고 脾旺則土盛하고 土盛則肝木自弱이니 雖性思克土나 遇焦土而自類矣라 故土衰者는 當補心以培土오 不必制木以救土라. 土制水者也에 脾之克腎은 又何畏于肺之生腎乎아? 不知肺旺則腎亦旺하고 腎旺則水盛하고 水盛則脾土自微니 雖性欲制水나 見長江而自失矣라 故水衰者는 當補肺以益水오 不必制土以蓄水라. 水制火者也에 腎水之克心은 又何畏

17) 柳長華, 상계서, p. 33.

肝之生心乎? 不知肝旺則心亦旺하고 心旺則火盛하고 火盛則腎水必虛니 雖性喜克水(火)나 見車薪而自退矣라 故火衰者는 當補肝以助心이오 不必制水以援心이라. 火制金者也에 心之克肺는 又何畏脾之生肺乎? 不知脾旺則肺亦旺하고 肺旺則金盛하고 金盛則心火自衰니 雖性欲克金이나 見頑金而難燬矣라 故金衰者는 當補土以滋金이오 不必息火以全金也라. 此五行之妙理오 實醫道之精微라 能于此深造之면 醫不稱神을 未之前聞也라.”<sup>18)</sup>

위의 내용은 相生과 相克의 상관성을 설명한 내용으로 相生이 지나치면 相克이 작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治法으로써 救其生不必制其克과 因其克反更培其生의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救其生은 我的 母를 補하여 나를 왕성하게 하면 될 뿐이지 나를 克하는 것을 瀉해서 나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因其克反更培其生도 위와 같은 뜻으로 나를 克하는 것이 있을 때 단지 나를 생하는 母만을 북돋아 주면 된다는 뜻이다.

이상의 6가지 내용에 대해 陳士鐸은 “五行生克은 本不可顛倒니 不可顛倒而顛倒者는 言生克之變也라 篇中專言其變而變不可窮矣라”<sup>19)</sup> 하여 相生과 相克은 바뀔수가 없지만 바뀌는 것은 相生之變과 相克之變 때문이라고 하였고 이 變은 무궁하다고 하였는데 이를보면 그는 五行의 相生, 相克에 대해 기계적인 틀을 벗어나 자유롭게 사고하고 활용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 長沙守張真人은 “闡發至此하니 精矣神矣라. 自有軒岐之書로 從未有談五臟之五行의 顛倒神奇至此라. 實有至理存乎其中하니 用之却有效라.”<sup>20)</sup>(깊은 내용을 밝힘이 여기에까지 이르렀으니 정밀하고도 신령스럽다. 내경이 있는 이후로 五臟의 五行顛倒를 말한 것이 신비하고 기이한 것이 이정도 경지에 이른 것이 없었다. 사실상 지극한 이치가 이속에 존재하고 있으니 활용하면 곧 효과가 있다)”라고

18) 柳長華, 상계서, p. 390.

19) 柳長華, 상계서, p. 33.

20) 柳長華, 상계서, p. 390.

하였다. 이러한 生克의 관계는 『黃帝內經』에서 論述한 五行의 生剋關係의 內容과 差異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內經』의 五行生剋의 理論을 보다 豊富히 하고 發揚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8) 五行生剋의 임상적 활용

陳士鐸의 이와 같은 相生·相克의 顛倒 思想은 어떤 실속 없는 說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著書에 一脈貫通되고 있다.

後人들은 陳士鐸의 學術思想을 評價할 때 그에게 있어 가장 뛰어난 부분이 辨證에 能한 것이라고들 말한다. 그가 辨證에 能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思想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그는 『石室秘錄·臟治法』에서 “二臟合而治之者는 其義又何居오 腎은 水臟也오 心은 火臟也라 是心腎二經爲仇敵이니 似乎不宜牽連而一治之라 不知心腎雖相剋이나 其實相須니 無心之火 則成死灰오 無腎之水 則成冰炭이라 心必得腎水而滋養하고 腎必得心火而溫暖이니 如人驚惕不安하며 夢遺精泄이 豈非心腎不交乎아 人以爲驚惕不安을 心之病이나 我以爲腎之病이오 夢遺精泄을 人以爲腎之病이나 我以爲心之病이니 非顛倒之也라 實至當不易之理”<sup>21)</sup>라고 論述한 바가 있다.

그는 또 『石室秘錄·逆醫法』에서 “蓋人生肺氣는 夜臥에 必歸氣於腎中하니 此母居子舍之義也라 今因色慾過度하여 腎水大耗하면 肺金日去生之오 久之 則不特腎水虛라 而肺金亦虛니 譬如家有浪子하여 日費千金하여 母有積蓄을 日日與之라가 傾囊倒篋하여 盡數交付其子니 後將安繼오 是子貧而母亦貧矣라 一遇外侮之侵에 將何物解紛고 而外侮又復恐嚇之면 逃之子舍하여 以避其鋒이나 而子家貧乏하여 無以奉母면 又必仍復還家하여 以受外侮之凌逼이니 勢不至不死면 不已라 今腎水既虧한대 而肺金又耗하여 外受心火之傷하고 中受肝木之橫하여 脾土又不來生水면 則輾轉難藏이니 於是에

21) 柳長華, 상계서, p. 338.

仍返而上喘이라 幸有一線元陽未絶이라 所以不死라 苟不大劑急救其腎하야 使貧子來偷竊이면 又何以肺金有養哉리오 況貧子暴富면 不特母家亦富라 而外侮亦不敢欺凌矣니 此不治肺而正所以治肺也라<sup>22)</sup>(사람의 肺氣는 밤에 잠을 잘 때에는 반드시 腎속으로 氣가 돌아가니 이것은 어머니가 자식의 집에 머무르는 뜻이다. 지금 色慾이 지나쳐 腎水가 크게 耗損되면 肺金이 매일 매일가서 生해주고 오래되면 腎水가 虛해질뿐만 아니라 肺金도 또한 虛해지니 비유컨대 집에 방탕한 아들이 있어 매일 千金을 소비하여 어머니가 저축했던 것을 매일매일 주다가 주머니를 털고 상자를 뒤집어 모든 돈을 그 자식에게 몽땅 주는 것과 같으니 뒤에 장차 어떻게 계속 하겠는가. 이는 자식이 가난해지면 어머니도 가난해지는 것이다. 한번 外侮의 침입을 받으면 장차 무엇을 가지고 해결을 하겠는가. 그리고 外侮에 또 다시 두려워하게 되면 자식의 집으로 도망가 그 에봉을 피하나 자식의 집도 가난하여 어머니를 봉양하지 못하면 또 반드시 집으로 돌아가 外侮의 업신여김을 받으니 형세가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면 그치지 않게 된다. 지금 腎水가 虧損되었는데 肺金이 또 소모되어 밖으로 心火의 손상을 받고 가운데로 肝木의 橫逆을 받아 脾土가 또 水를 生하지 못하면 돌고 돌아 갈무리하기 어려우니 이에 다시 돌아가 천식을 일으킨다. 다행히 한줄기 元陽이 끊어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죽지않은 것이니 진실로 대제로 급히 그 腎을 구원해서 가난한 아들로 하여금 와서 도움을 받게하지 않는다면 또 무엇으로 肺金을 養함이 있겠는가. 하물며 가난한 아들이 갑자기 부자가 되면 어머니도 부자가 될 뿐만 아니라 外侮도 감히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니 이는 肺를 다스리지도 않고서도 바로 肺를 다스리는 방법이 다)"라고 하였다.

陳士鏞이 陰陽顛倒 및 五行生剋의 理論으로 臟腑의 生剋關係를 通論한 要旨는 臨證時에 自由自

22) 柳長華, 상계서. p. 238.

在로 變通해야 한다는 것을 強調하고자 하는데 있다. 즉 말하자면 한 臟의 病은 왕왕 여러 臟을 兼하여 治療해야 하고, 한 經의 病은 때때로 여러 經을 兼하여 治療해야 하며, 한 經에 있는 邪氣도 혹은 다른 經을 통하여 다스려질 수가 있기에 藥物 使用時에는 너무나 틀에 拘碍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바로 그가 『辨證錄·凡例』에서 “各門辨證은 專講五行生剋之理의 生中有剋 剋中有生하야 經權常變이 顛倒紛紜하니 貴人은 善讀之耳<sup>23)</sup> (각 조문의 변증은 오로지 五行生剋之理의 相生 가운데 相剋이 있고 相剋가운데 相生이 있는 것을 論講하여 經法과 權道, 常道와 變法이 뒤집히고 복잡하니 貴人은 잘 읽을 따름이라)”라고 한 것과, 『脈訣闡微』에서 “臟腑之病은 雖各不同이나 要不外五行之生剋하니 逢生則病易愈也오 逢剋則病難痊也라 我生則泄我之氣하고 我剋則勞我之神이라 臟腑는 爲戰爭之地오 胸腹은 爲角鬪之場이니 敵則掃除라도 而斬殺甚多하고 傷損必過矣라 調停於生剋之間하고 和解於敗亡之內니 仍於金木水火土而善用之也라<sup>24)</sup> (장부의 병은 비록 각기 다르나 요점은 五行의 相生 相剋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니 相生을 만나면 쉽게 낫고 相剋을 만나면 병이 낫기가 어렵다. 내가 生하면 나의 氣를 泄하고 내가 克하면 나의 神을 고달프게 할 것이다. 장부는 전쟁터요 흥복은 각축장이니 적이 제거되더라도 배이죽인 것이 아주 많고 손상된 것이 반드시 지나칠 것이다. 相生과 相剋의 사이에서 조정하고 폐망한 안에서 和解시킬 것이니 여전히 金木水火土에서 잘 활용할 것이다)”라고 한 것을 통하여 우리는 五行生剋의 深意를 잘 應用하는 陳氏의 깊은 뜻을 可히 헤아릴 수가 있을 것이다.

### III. 結 論

23) 陳士鏞, 辨證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 15.

24) 陳士鏞, 상계서. p. 857.

陳士鐸의 저서를 통해 그가 陰陽五行論에 대하여 前人이 未發했던 내용을 闡發한 것에 대해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陳士鐸은 陰陽顛倒說을 주장하여 順生逆死의 常이 變하여 順之有死와 逆之有生이 됨을 주장하였는데 이의 뿌리는 陰陽의 互根 관계이다.
2. 그는 五行의 相生관계가 相克관계가 되기도 하고 五行의 相克관계가 相生관계로 변화할수 있음을 闡發하였다.
3. 그는 生中之克의 이론을 주장하여 五行의 相生관계에서 本身의 臟에 水가 없으면 子臟을 生하지 못하고 子臟을 도리어 害한다고 하였다.
4. 그는 克中之生의 이론을 주장하여 肝克土하나 土生肝의 관계도 성립하며 木克土하여 土가 疏通이 되면 土가 生氣를 얻게 되어 肝生土하게 된다고 하였다. 餘臟도 이와 同一한 관계가 성립한다.
5. 그는 生不全生의 이론을 주장하여 腎水는 전적으로 肝만을 生하지 않고 나머지 臟腑를 모두 生하여 生命활동의 뿌리가 되지만 지나친 활동은 腎水를 고갈시켜 生命이 위태롭게 된다고 하였다.
6. 그는 克不全克의 이론을 주장하여 腎火는 전적으로 心火만 克하지 않고 나머지 臟腑를 모두 克하므로 腎火가 過亢하면 臟腑에 위해를 끼치지만 일정한 한계가 있어 완전히 해치는 것만은 아니라고 하였다.
7. 그는 生長克而不敢生의 理論을 주장하여 相克의 기운이 강하면 相生을 저해하는데

이때는 강한 相克의 기운을 瀉하거나 相克을 받는 本身을 補하여 치료한다고 하였다.

8. 그는 克畏生而不敢克의 이론을 주장하여 相生의 기운이 강하면 相克이 작용하지 못함을 설명하였는데 이때는 母를 補하여 子를 왕성하게 하면 되고 子를 克하는 것을 瀉해서 子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9. 陳士鐸은 臟腑의 生中有克 克中有生의 이론을 원할하게 운용하여 辨證에 자유자재로 活用하였다.

## 參 考 文 獻

1. 南京中醫學院醫經教研組編著 黃帝內經素問譯釋 上海 上海科技出版社 1981
2. 柳長華 陳士鐸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3.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成輔社 1982
4. 陳士鐸 辨證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